



## 하나 된 마음으로 노래 위에 즐거움을 싣고

+ 고양레이디스싱어즈

1:23

⌂

⏮



⏭

⏹

2:48

노래를 좋아하는 고양시 여성들이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합창이란 음악 안에서 너와 나,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고양레이디스싱어즈.  
연습실 문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는 합창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 PLAYLIST 1 ▶ ..... 모두 힘을 모아 부르는 노래

2016년에 창단한 고양레이디스싱어즈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30~50대 여성들이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아마추어 여성 합창단이다. 김명희 대표를 주축으로 한 고양레이디스싱어즈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들이 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부터 장성한 자제가 있는 엄마까지, 자라고 살아온 배경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음악이라는 연결고리가 이들을 하나로 잇고 있다.

66

대화마을의 한 피아노 교습소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의기투합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놀이터, 학교에서 알음알음  
알고 지냈던 엄마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합창이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음악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99

이들은 백석동에 있는 두레플러스아트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연습한다. 지휘자의 손짓을 따라 실제 무대처럼 연습하는 단원들의 눈빛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올해 10월 열릴 ‘아리랑 피어나다’ 무대 준비를 위해 연습에 여념이 없다.



### PLAYLIST 2 ▶ ..... 합창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

고양레이디스싱어즈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감하며 소통한다. 자신을 돋보이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하모니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고양레이디스싱어즈는 한걸음씩 맞춰나가고 있다. 합창을 하며 얻는 행복의 기운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회비 일부로 전달하는 기부금에는 아이들이 1인 1악기를 배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따스한 마음이 담겨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활동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조금씩 일상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요즘 고양레이디스싱어즈는 이전처럼 재능기부, 봉사활동, 마을 축제에 참여하며 고양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계획을 짜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문화 소외 지역에 가서 봉사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고양레이디스싱어즈가 바라는 건 하나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것. 목소리도 모두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합창의 묘미. 연습하러 가는 길이 설레고 노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말하는 이들의 음악은 더없이 아름답다.

### 고양 레이디스싱어즈



네이버카페  
바로가기



오픈채팅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